

# 高麗版『禮記集說』의 殘存本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xtant Volume of the *Yegijipseol* Published by Goryeo Dynasty

朴文烈 (Park, Moon-Year)\*

## ◁ 목 차 ▷

- |                       |                        |
|-----------------------|------------------------|
| 1. 緒言                 | 3.2 高麗版『禮記集說』의 版本的 特徵  |
| 2. 『禮記集說』의 編次와 版本     | 3.3 高麗版『禮記集說』의 口訣과 藏書印 |
| 3. 高麗版『禮記集說』의 殘存本과 特徵 | 4. 結 論                 |
| 3.1 高麗版『禮記集說』의 殘存本    | <參考文獻>                 |

## < 초 록 >

본 연구는 『禮記集說』의 編纂과 版本 및 高麗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覆刻된 高麗版 『禮記集說』의 殘存本과 그 版本的 特徵 등에 관하여 考察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禮記集說』은 雲莊 陳澹(1260-1341)가 至治 2년(1322)에 平易하고 分명한 설명으로 初學者들이 읽어도 바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校讎經文>·<援引書目>·<註說去取>·<音文反切>·<章句分段> 등의 著述觀을 발휘하여 49권 16권으로 저술하였으며 元朝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初刊된 바 있다.

(2) 元朝 鄭明德家版 16권본 『禮記集說』은 그 뒤 明朝 成化年間(1465-1487)에 간행된 30권본과 弘治 17년(1504)에 간행된 10권본 등의 판본과 함께 世間에 널리 유포되었으며, 鄭明德家版의 『禮記集說』은 高麗로 傳來되어 公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覆刻의 형태로 初刊되었다.

(3) 高麗版 『禮記集說』은 16권 完帙이 傳來되지 않고 권1-2·4-12 등의 11권이 殘存本으로 傳來되고 있을 뿐 권3·13-16 등의 5권은 어디에도 傳來되지 않고 있다.

(4) 高麗版 『禮記集說』의 殘存本 일부에는 內容과 字體뿐 아니라 卷頭題·卷尾題·版心題·版耳題·邊欄·半郭·界線·行字數·版口·魚尾 등의 記錄과 樣式에서 그 版本的인 特徵이 잘 나타나고 있다.

(5) 高麗版 『禮記集說』의 殘存本에는 刻手의 失手로 인한 誤刻과 未刻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釋讀形 口訣과 함께 ‘러나’·‘러시나’·‘어’·‘어든’·‘어시든’·‘에’·‘회’ 등의 한글 口訣이 달린 곳도 있고 한글 發音이 板刻된 형태로 나타나는 곳도 있다.

(6) 高麗版 『禮記集說』의 殘存本 일부에는 ‘東湖堂藏’·‘玉澗亭藏’·‘徐汝中’ 등의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어 이들 藏書印을 통하여 殘存本의 전래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7) 高麗版 『禮記集說』의 殘存本은 비록 元朝版의 覆刻版이나 우리나라 初刊의 稀貴本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朝鮮朝의 『禮記淺見錄』·『禮記類編』·『禮記補註』 등 각종 위대한 禮書들을 저술하는데 底本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研究·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을 殘存本으로 평가된다.

要語: 『禮記』, 『禮記集說』, 陳澹, 鄭明德家版, 尙州版, 高麗版, 殘存本

\* 淸州大學校 人文社會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투고일: 2019년 2월 11일 최초심사일: 2019년 3월 4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8일

서지학연구, 제77집, 27-47,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7.27]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extant volume of the *Yegijipseol* (*Lijijishuo*) published by Sangjumok in Goryeo Dynast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Yegijipseol* was written in the second year (1322) of the Zhizhi era by Chen Hao (1260-1341) in a manner that allows even beginners to easily read and understand the meanings clearly, in addition to his thoughts of writing. It consisted of 16 volumes with 49 parts, first published in the first year (1328) of the Tianli era in the Yuan dynasty by the House of Zheng Ming De in Jian-an.

(2) The Ming-De Zheng House edition of the *Yegijipseol* in the Yuan dynasty was widely prevalent along with the woodblock-printed books with 30 volumes and 10 volumes, published in the reign (1465-1487) of the Chenghua Emperor of the Ming dynasty and in the 17th year (1504) of the reign of the Tongzhi Emperor, respectively. This edition was introduced to Goryeo, where it was first published in a form of re-engraving in Sangjumok, Gyeongsang-do, in the third year (1391) of King Gongyang in the Goryeo dynasty.

(3) A complete set of the 16 volume *Yegijipseol* of the Goryeo edition has not been passed down. At present, 11 volumes, including volumes 1, 2, and 4 to 12, are extant, and 5 volumes, including volumes 3 and 13 to 16, have not been found anywhere today.

(4) The extant volumes *Yegijipseol* of the Goryeo edition indic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odblock-printed book not only through their contents and letter styles, but also in the beginning, ending, centered and eared titles, four border lines, half inner size, between lines, number of lines and characters, entrance marks, and fishtail marks of the woodblock.

(5) The extant volumes of *Yegijipseol* of the Goryeo edition have false and omitted engravings caused by engravers' mistakes. Along with Gugyeol, which is a system for rendering text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into understandable Korean, Korean endings were added to classical Chinese phrases or the original pronunciation of Hangeul was shown in a form of engraving.

(6) The extant volumes *Yegijipseol* of the Goryeo edition have impression seals that read Donghodang-jang (collection of Donghodang), Okganjeongjang (collection of Okganjeong), and Seoyeojung, all of which serve as a clue for surmising the processes of passing down the extant volumes.

(7) The extant volumes *Yegijipseol* of the Goryeo edition is considered worthwhile to be researched, preserved, and managed as a national cultural property in that it was a rare and first published in Korea even though it was a re-engraved version of the Yuan dynasty edition, and used as a basic work for writing great ritual books including the *Yegicheongyeonrok*, *Yegiryupyeon*, and *Yegiboju* in the Joseon dynasty.

Key words: the *Yegi*(禮記), the *Yegijipseol*(禮記集說), the *Lijijishuo*(禮記集說), Chen Hao(陳澹), the edition of Jeong Myeong Deok (Zheng Ming De) House(鄭明德家版), the edition of Sangju(尙州版), the edition of Goryeo Dynasty(高麗版), Extant volume(殘存本·現存本·殘卷)

## 1. 緒言

『禮記集說』은 元朝의 至治 2년(1322)에 당시의 저명한 理學家이며 教育家인 雲莊 陳澧(1260-1341)가 『禮記』에 관한 諸家의 學說을 49편 16권으로 集錄하여 저술한 『禮記』의 註釋書로 ‘『雲莊禮記集說』’·‘『陳氏禮記集說』’로도 알려져 있다.

雲莊의 『禮記集說』은 저술된 지 6년이 지난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初刊된 바 있으며, 이 판본이 高麗로 유입되어 우리나라에서는 公陽왕 3년(1391)에 安翊(?-1410)과 李復始(?-?) 등에 의하여 慶尙道의 尙州牧에서 覆刻의 형태로 초간된 바<sup>1)</sup> 있다.

그러나 尙州牧에서 初刊된 高麗版 『禮記集說』은 현재 完帙이 傳來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그 일부가 奎章閣韓國學研究院과 개인의 古興博物館 등에 殘存本으로 소장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中朝에서의 『禮記集說』의 編次와 版本은 물론 尙州牧에서 初刊된 高麗版 『禮記集說』의 傳存現況과 그 版本的인 특징 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麗末鮮初의 地方印刷文化를 理解하고 照明하는데 一助하고자 한다.

## 2. 『禮記集說』의 編次와 版本

雲莊 陳澧는 『禮記集說』 <序文>의 첫머리에서 前代의 聖人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정하여 놓은 準則 중에 『禮』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후대의 聖人이 후세에 전하려고 가르침을 세운 서적 중에서 禮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闡明하면서, 『禮』와 禮書는 천지와 더불어 그 법도를 함께 할 정도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禮經』의 殘缺과 禮書의 淺深에 관하여 깊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안타까움을 동기로 하여, 雲莊은 그의 부친인 東齋 陳大猷(1188-1275)가 雙峯 饒魯(1193-1264)의 문하에서 14년 동안 『禮記』를 수학한 뒤에 강론한 바가 적지 않았으나 중간에 화재로

1) 朴文烈, “尙州牧 刊行의 高麗版 『禮記集說』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75輯(2018. 9), 45-64. 參看.

2)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頭. ‘禮記集說序’條.

“前聖繼天立極之道 莫大於禮 後聖垂世立教之書 亦莫先於禮 禮儀三百 威儀三千 孰非精神心術之所寓 故能與天地同其節 四代損益 世遠經殘 其詳 不可得聞矣 儀禮十七篇 戴記四十九篇 先儒 表章學庸 遂爲千萬世道學之淵源 其四十七篇之文 雖純駁不同 然義之淺深同異 誠未易言也 鄭氏祖識緯 孔疏惟鄭之從 雖有他說 不復收載 固爲可恨 然其灼然可據者 不可易也 近世應氏集解 於雜記大小記等篇 皆闕而不釋 噫 慎終追遠 其關於人倫世道 非細故 而可略哉 先君子 師事雙峰先生 十有四年 以是經 三領鄉書 爲開慶名進士 所得於師門講論 甚多 中罹煨燼 隻字不遺 不肖孤 僭不自量 會萃衍繹而附以臆見之言 名曰禮記集說 蓋欲以坦明之說 使初學讀之 卽了其義 庶幾章句 通則蘊奧 自見 正不必高爲議論而卑視訓詁之辭也 書成 甚欲就正於四方有道之士 而衰年多疾 遊歷良艱 姑藏巾笥 以俟來哲 治教方興 知禮者 或有取焉 亦愚者千慮之一爾 至治壬戌良月既望 後學 東匯澤 陳澧序。”

모두 타버리자 외람되게 자료를 모으고 부연하여 설명한 다음에 자신의 所見을 붙여 『禮記集說』을 저술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雲莊은 자신이 『禮記集說』을 편찬한 것은 평탄하고 분명한 설명으로 初學者가 읽어도 바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와 목적에 있었던 만큼, 『禮記』의 章句를 알고 나면 심오한 내용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므로 굳이 내용의 토론만을 고상히 여기고 字句를 풀이하는 것을 하찮게 여길 것까지는 없을 것이라 하였다.

나아가 雲莊은 『禮記集說』의 저술이 완료되자 冊幘에 보관하여 두고 후세의 識見이 있는 人士를 기다리면서 治教가 興隆할 때에, 『禮』를 아는 인사가 혹 자신의 『禮記集說』에서 본받을 만한 점이 있게 된다면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이 조금이나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雲莊의 『禮記集說』의 권두에는 그의 著述觀을 짐작할 수 있는 <校讎經文>·<援引書目>·<註說去取>·<音文反切>·<章句分段> 등 5조의 <禮記集說凡例><sup>3)</sup>가 수록되어 있다.

<校讎經文><sup>4)</sup>는 『禮』의 經文 중에 나타나는 疑心處를 校讎할 때에 사용된 底本の 目錄으로 『蜀大字本』<sup>5)</sup>·『宋舊監本』<sup>6)</sup>·『興國于氏本』<sup>7)</sup>·『肝郡重刊廖氏本』<sup>8)</sup>·『建本註疏』<sup>9)</sup>·『南康經傳通解』<sup>10)</sup> 등 6종의 판본이 著錄되어 있으며, <援引書目><sup>11)</sup>은 『禮記集說』을 저술할 때에 참고와 인용에 사용된 禮書의 목록으로 『漢鄭氏註』<sup>12)</sup>·『唐孔氏疏』<sup>13)</sup>·『儀禮古註疏』<sup>14)</sup> 등 무려 39종의 禮書가 著錄되어 있다.

雲莊은 『禮記集說』을 저술하면서 註說의 取舍에 있어 모든 名物과 度數는 鄭玄(127-200)의 『禮記注』와 孔穎達(574-648)의 『禮記正義』에 근거하고 道學의 正論은 程子(1033-1107)와 朱子(1130-1200)의 學說를 중심으로 하되 의미가 정밀·자세한 것은 諸家의 學說에서 취하며, 미비한 의미를 새로이 발명한 것은 자신의 견해로 보충하였음을 <註說取舍><sup>15)</sup>에서 밝히고 있다. 音文의

3) 이에 관하여는 辛承云 교수의 『譯註禮記集說大全』(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09) 卷1, 9-40.에 자세하다.  
 4)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頭. 禮記集說凡例. '校讎經文'條.  
 "校讎經文: 蜀大字本 宋舊監本 興國于氏本 肝郡重刊廖氏本 建本註疏 南康經傳通解."  
 5) 『蜀大字本』: 宋朝 蜀(四川)에서 板刻된 大字의 판본을 지칭하는 것이다.  
 6) 『宋舊監本』: 宋朝 國子監의 판본을 지칭하나 大字·中字·小字 中的 어느 판본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  
 7) 『興國于氏本』: 蜀本과 監本 等에는 없던 句讀가 처음으로 표시되었으며 후에 廖氏本의 底本이 되었다.  
 8) 『肝郡重刊廖氏本』: 宋朝 廖剛(1070-1143)이 諸家의 판본을 參考·校讎·板刻하여 당시에 이미 천하의 보배로 칭송된 판본이다.  
 9) 『建本註疏』: 宋朝 福建에서 板刻된 『十三經註疏』를 지칭하는 것으로 流布가 가장 광범하였던 판본이다.  
 10) 『南康經傳通解』: 宋朝 嘉靖 10년(1217)에 南康에서 板刻된 朱熹의 『儀禮經傳通解』를 지칭하는 것이다.  
 11)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頭. 禮記集說凡例. '校讎經文'條.  
 "援引書籍: 漢鄭氏註 唐孔氏疏 儀禮古註疏 儀禮經傳通解 楊氏祭禮通解 陸氏經典釋文 九經註疏 許氏說文 杜氏通典 鄭氏通志略 程氏遺書 程子粹言 張子語錄 朱子四書 朱子小學書 朱子大全集 朱子語類 春秋纂例 三山陳氏禮書 潛室陳氏木鍾集 孫氏示兒編 方氏集解 應氏集解 贊黃浩齋集解 蔡氏書傳 呂氏詩記 嚴氏詩緝 周官制度 括蒼項氏禮說 龍泉葉氏記言 朱周翰節解 源流至論 馬氏禮解 雙峯饒氏說 肝江李氏說 石梁王氏批 藍田呂氏說 亮軒馮氏說 恒軒劉氏說."  
 12) 『漢鄭氏註』: 漢朝 鄭玄의 『禮記注』를 지칭하는 것이다.  
 13) 『唐孔氏疏』: 唐朝 孔穎達의 『禮記正義』를 지칭하는 것이다.  
 14) 『儀禮古註疏』: 漢朝 鄭玄이 注하고 唐朝 賈公彥이 疏한 『儀禮註疏』를 지칭하는 것이다.

反切은 그 의미가 古註와 같은 것은 陸德明(550-630)의 『經典釋文』을 따르고 새로운 의미를 밝명 한 것은 諸家の 穴說을 따랐음을 <音文反切><sup>16)</sup>에서 밝히고 있다. 나아가 章句를 分段하는 圈點은 古註에는 문단마다 모두 圈點하였으나, 자신의 『禮記集說』에서는 『建本註疏』와 『蜀大字本』 및 廖剛(1071-1143)의 『盱郡重刊廖氏本』 등에 따라 圈點하지 않았음을 <章句分段><sup>17)</sup>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元朝의 至治 2년(1322)에 저술된 雲莊의 『禮記集說』은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初刊된 판본의 계통을 비롯하여 明朝 成化年間(1465-1487)에 간행된 30권본 계통과 弘治 17년(1504)에 간행된 10권본 계통의 판본들이 널리 유포되었다.

<表 1> 『禮記集說』의 版本別 收錄 篇次<sup>18)</sup>

	元祖 天曆 元年(1328) 16卷本	明朝 成化年間(1465-1478) 30卷本	明朝 弘治 17年(1504) 10卷本
卷頭	<禮記集說序>(陳澹) <禮記集說凡例>	<禮記集說序>(陳澹)	<禮記集說序>(陳澹)
卷01	<曲禮上> <曲禮下>	<曲禮上>	<曲禮上> <曲禮下>
卷02	<檀弓上>	<曲禮下>	<檀弓上> <檀弓下>
卷03	<檀弓下>	<檀弓上>	<王制> <月令>
卷04	<王制>	<檀弓下>	<曾子問> <文王世子> <禮運>
卷05	<月令>	<王制>	<禮器> <郊特牲> <內則>
卷06	<曾子問> <文王世子>	<月令>	<玉藻> <明堂位> <喪服小記> <大傳> <少儀> <學記>
卷07	<禮運> <禮器>	<曾子問>	<樂記> <雜記上> <雜記下>
卷08	<郊特牲> <內則>	<文王世子>	<喪大記> <祭法> <祭義> <祭統> <經解>
卷09	<玉藻> <明堂位>	<禮運>	<哀公問> <仲尼燕居> <孔子閒居> <坊記> <中庸> <表記> <緇衣> <奔喪>
卷10	<喪服小記> <大傳> <少儀> <學記>	<禮器>	<問喪> <服問> <問傳> <三年問> <深衣> <投壺> <儒行> <大學> <冠義> <昏義> <鄉飲酒義> <射義> <燕義> <聘義> <喪服四制>
卷11	<樂記>	<郊特牲>	-
卷12	<雜記上> <雜記下>	<內則>	-
卷13	<喪大記> <祭法> <祭義>	<玉藻>	-
卷14	<祭統> <經解> <哀公問> <仲尼燕居> <孔子閒居> <坊記> <中庸>	<明堂位>	-

15) 陳澹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頭. 禮記集說凡例. ‘校讎經文’條.  
“註疏去取: 凡名物說數 据古註正義 道學正論 宗程子朱子 正義詳盡則泛取諸家 發明未備則足以己意.”

16) 陳澹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頭. 禮記集說凡例. ‘音文反切’條.  
“音文反切: 義同古註則依陸氏釋文 發明新義則各据諸家.”

17) 陳澹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頭. 禮記集說凡例. ‘章句分段’條.  
“章句分段: 俗本古註章斷皆圈 今依註疏及蜀本廖本古註皆不圈.”

18) 劉千惠, “陳澹 禮記集說之研究,” (碩士學位論文, 台北: 東吳大學, 民國 97(2008), 45-46.

	元祖 天曆 元年(1328) 16卷本	明朝 成化年間(1465-1478) 30卷本	明朝 弘治 17年(1504) 10卷本
卷15	〈表記〉〈緇衣〉〈奔喪〉〈問喪〉〈服問〉 〈間傳〉〈三年問〉〈深衣〉	〈喪服小記〉	-
卷16	〈投壺〉〈儒行〉〈大學〉〈冠儀〉〈昏義〉 〈鄉飲酒義〉〈射義〉〈燕義〉〈聘義〉 〈喪服四制〉	〈大傳〉〈少儀〉	-
卷17	-	〈學記〉	-
卷18	-	〈樂記〉	-
卷19	-	〈雜記上〉	-
卷20	-	〈雜記下〉	-
卷21	-	〈喪大記〉	-
卷22	-	〈祭法〉〈祭義〉	-
卷23	-	〈祭統〉〈經解〉	-
卷24	-	〈哀公問〉〈仲尼燕居〉〈孔子閒居〉	-
卷25	-	〈坊記〉〈中庸〉	-
卷26	-	〈表記〉	-
卷27	-	〈緇衣〉〈奔喪〉〈問喪〉	-
卷28	-	〈服問〉〈間傳〉〈三年問〉〈深衣〉 〈投壺〉	-
卷29	-	〈儒行〉〈大學〉〈冠儀〉〈昏義〉 〈鄉飲酒義〉	-
卷30	-	〈射義〉〈燕義〉〈聘義〉〈喪服四制〉	-
合計	49篇	49篇	49篇

雲莊의 『禮記集說』은 초간의 16권본을 중심으로 볼 때, 30권본과 10권본은 간행의 시기에 따라 卷數의 차이는 나타나고 있으나, <曲禮>·<檀弓>·<雜記> 등이 상·하로 分篇된 것을 비롯하여 도합 49편의 編次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雲莊의 『禮記集說』은 후대의 明清 兩朝를 통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① 經文을 해석하는 태도가 謹嚴하여 경문에 관하여 臆斷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② 宋·元朝의 『禮記』와 관련된 문헌을 수록하고 보존하여 후세의 연구자들에게 현전하지 않는 송·원조 학자들의 『禮』에 관한 견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③ 宋朝 이전 학자들의 『禮』에 관한 학설에서 나타나는 文字의 異同을 校勘하여 후세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④ 경문을 간략히 해석하여 그 보급을 보다 容易하게 하였다. ⑤ 경문의 해석에 시대적인 특색을 모두 담아내고 있다 등이며, 부정적인 평가로는 ① 訓詁가 명확하지 않다. ② 禮制가 疏略하다 등이다.<sup>19)</sup>

나아가 雲莊의 『禮記集說』은 후대의 明·清朝를 거치며 書院教育과 科擧制度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학자들의 名物訓詁·典章制度·義理闡發 등을 통한 補正的인 저술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0)</sup>

19) 劉千惠, “陳澧 禮記集說之研究,” (碩士學位論文, 台北: 東吳大學, 民國 97(2008), 95-110.

20) 劉千惠, “陳澧 禮記集說之研究,” (碩士學位論文, 台北: 東吳大學, 民國 97(2008), 111-123.

### 3. 高麗版『禮記集說』의 殘存本과 特徵

高麗版『禮記集說』은 元朝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초간된 16권의 판본을 底本으로 하여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16권으로 간행된 판본이다.

#### 3.1 高麗版『禮記集說』의 殘存本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의 尙州牧에서 초간된 高麗版『禮記集說』은 16권의 完帙이 傳來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奎章閣에 소장된 권4·5·6의 3권 1책<sup>21)</sup>과 古興博物館에 소장된 권1·2와 권5·6·7·8 및 권9·10·11·12 등 10권 3책<sup>22)</sup> 등이 殘存本으로 傳來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高麗版『禮記集說』은 현재 권1-2·4-12 등의 11권이 殘存本으로 傳來되고 있으며, 권3·13-16 등의 5권은 어디에도 傳來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表 2> 鄭明德家版『禮記集說』과 高麗版『禮記集說』의 書誌的 特徵

番號	事項	鄭明德家版本(1328)	高麗版本(1391)		
		上海圖書館藏本 (卷1-16 完帙)	古興博物館藏本 (卷1-2)	奎章閣藏本 (卷4-6)	古興博物館藏本 (卷5-8, 9-12)
01	書名	禮記	禮記	禮記	禮記
02	著者	後學東匯澤陳澹集說	後學東匯澤陳澹集說	後學東匯澤陳澹集說	後學東匯澤陳澹集說
03	版種	木版本[初刻私人版]	木版本[元本覆刻版]	木版本[元本覆刻版]	木版本[元本覆刻版]
04	刊行地	建安	[慶尙道]	[慶尙道]	[慶尙道]
05	刊行處	鄭明德家	[尙州牧]	[尙州牧]	[尙州牧]
06	刊行年	天曆 元(1328)年	[恭讓王 3(1391)]	[恭讓王 3(1391)]	[恭讓王 3(1391)]
07	卷冊數	16卷[4]冊	16卷[8]冊	16卷[?]冊	16卷[4]冊
08	序文	陳澹 至治壬戌年(1322)	陳澹 至治壬戌年(1322)	-	-
09	凡例題	[禮記集說]	禮記集說	-	-
10	序題	[禮記集說]	禮記集說	-	-
11	卷頭題	禮記	禮記集說·禮記	禮記集說·禮記	禮記集說·禮記
12	版心題	禮記	禮記集說·禮記	禮記集說·禮記	禮記集說·禮記
13	板耳題	各篇名	各篇名	各篇名	各篇名
14	卷尾題	禮記	禮記集說·禮記	禮記集說·禮記	禮記集說·禮記
15	邊欄	四周雙邊	凡例:上下左單邊 右雙邊 四周單邊	四周單邊	四周單邊
16	半郭	20.6×13.1cm	18.2-19.6×12.3-12.9cm	18.2-19.6×12.3-12.9cm	18.2-19.6×12.3-12.9cm
17	界線	有界	無界(混 有界)	無界(混 有界)	無界(混 有界)
18	行字數	11行21字 註小字雙行	11行21字 註小字雙行	11行21字 註小字雙行	11行21字 註小字雙行

21) 奎章閣 所藏의 高麗版『禮記集說』의 殘本은 卷4·5·6의 3卷 1冊이다. <古181.1143 -J562-v.4/6>

22) 古興博物館 所藏의 高麗版『禮記集說』의 殘本은 卷1·2 / 5·6·7·8 / 9·10·11·12의 10卷 3冊이다.

番號	事項	鄭明德家版本(1328)	高麗版本(1391)		
		上海圖書館藏本 (卷1-16 完帙)	古興博物館藏本 (卷1-2)	奎章閣藏本 (卷4-6)	古興博物館藏本 (卷5-8, 9-12)
19	板口	上下黑口	上下黑口	上下黑口	上下黑口
20	魚尾	上下下向黑魚尾	上下下向黑魚尾(混白)	上下下向黑魚尾(混白)	上下下向黑魚尾(混白)
21	規格	28,3×18,0cm	24,9×16,3cm	27,8×16,9cm	25,9×16,0cm 26,1×16,0cm
22	跋文	潘景鄭跋	-	-	[進重刊陳澹齋集說禮記牋(安翊)] <sup>23)</sup>
23	紙質	漢紙(竹紙)	韓紙(楮紙)	韓紙(楮紙)	韓紙(楮·蕓精)
24	裝訂	線裝	線裝	線裝	線裝
25	殘卷	卷1-16(完帙)	卷1·2	卷4·5·6	卷5·6·7·8 卷9·10·11·12
26	藏書印	'伯寅藏書'等	'東湖堂藏'	[不明(刀削)]	'玉潤亭藏'·'徐汝中'

또한, 高麗版 『禮記集說』의 裝訂은 古興博物館에 소장된 권1-2의 2권 1책과 권5-8·9-12 등의 8권 2책의 권수와 책수의 단위로 미루어, 원래는 16권 8책과 16권 4책 등 몇 가지 형태로 장정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 3.2 高麗版 『禮記集說』의 版本的 特徵

高麗版 『禮記集說』 殘存本の 版本的 특징은 內容의 誤謬와 字體 및 卷頭題·卷尾題·版心題·版耳題·邊欄·半郭·界線·行字數·版口·魚尾·板刻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3.2.1 內容의 誤謬

高麗版 『禮記集說』의 殘存本에는 내용상으로 볼 때 誤謬로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

<月令> '仲春'의 "... 仲丁에 또다시 악정에게 명하여 학교에 들어가 음악을 익히게 한다(... 仲丁 又命樂正 入學習樂)."<sup>24)</sup>는 경문 말미의 "入學習樂"은 "入學習舞"의 오류가 아닌가 한다.

또한, <月令> '仲秋'의 "... 이에 보리의 파종을 권장하여 농사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기를 놓쳐서 짓는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 乃勸種麥 毋或失時 其有失時 行罪無赦)."<sup>25)</sup>는 경문 말미의 "其有失時 行罪無赦"는 "其有失時 行罪無疑"의 오류가 아닌가 한다.

23) 李仁榮 編, 『清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寶庫社, 1993). 卷3. 壬辰以前刻本及鈔本. 外人撰述上. 133-134. "... 洪武貳拾肆年玖月 慶尙道都觀察使安翊 進重刊陳澹齋集說禮記牋 ..."

24) 陳澹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5B條. "... 仲春 ... 命樂正 習舞釋菜 天子乃帥三公九卿諸侯大夫親往視之 仲丁 又命樂正 入學習樂 ..."

25) 陳澹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16A. "... 仲秋 ... 乃勸種麥 毋或失時 其有失時 行罪無赦 ..."

<表 3> 高麗版『禮記集說』의 殘存本과 卷次別 版本의 特徵

凡例	存否	版數	卷頭題	版心題	版耳題	卷尾題	邊欄	半郭 (例13cm)	界線	行字數	版口	魚尾	口訣	規格(cm)	紙質	裝訂	藏書印	所藏處
序	存	2	禮記集說	-	-	禮記集說	右雙	18.2×12.5	有	10/20	上下黑	上下下向黑	無	-	韓紙	綉裝	東湖堂藏(頭)	古興博藏
卷01	存	1	禮記集說	-	-	-	四周單	18.5×12.5	無/有	10/20	上下黑	上下下向黑	無	-	韓紙	綉裝	-	古興博藏
卷02	存	35	禮記	【禮記】等	【曲禮】	禮記	四周單	18.0×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	有/無	24.9×16.3	韓紙	綉裝	-	古興博藏
卷03	存	27	禮記	【禮記】等	【檀弓】	禮記	四周單	19.0×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白	有/無	-	韓紙	綉裝	東湖堂藏(尾)	古興博藏
卷04	否	-	-	-	-	-	-	-	-	-	-	-	-	-	-	-	-	-
卷05	存	-	禮記	【禮記】等	【王制】	禮記	四周單	19.2×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白	無	27.8×16.9	韓紙	綉裝	【刀削(頭)】	奎章閣藏
卷06	存	24	禮記	【禮記】等	【月令】	禮記	四周單	18.5×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白	無	27.8×16.9	韓紙	綉裝	玉淵亭藏·徐汝中(頭)	奎章閣藏 古興博藏
卷07	存	27	禮記	【禮記】等	多樣	-	四周單	19.2×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白	無	25.9×16.0	韓紙	綉裝	-	奎章閣藏 古興博藏
卷08	存	29	禮記	【禮記】等	多樣	禮記	四周單	18.9×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	有	-	韓紙	綉裝	-	奎章閣藏 古興博藏
卷09	存	32	禮記	【禮記】等	多樣	禮記	四周單	19.3×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	有/無	-	韓紙	綉裝	徐汝中(尾)	古興博藏
卷10	存	22	禮記	【禮記】等	多樣	禮記	四周單	19.5×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白	無	26.1×16.0	韓紙	綉裝	玉淵亭藏·徐汝中(頭)	古興博藏
卷11	存	31	禮記	【禮記】等	多樣	禮記	四周單	19.0×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	無	-	韓紙	綉裝	-	古興博藏
卷12	存	26	禮記	【禮記】等	【樂記】	禮記	四周單	19.3×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	無	-	韓紙	綉裝	-	古興博藏
卷13	存	26	禮記	【禮記】等	【雜記】	禮記	四周單	19.5×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	無	-	韓紙	綉裝	-	古興博藏
卷14	否	-	-	-	-	-	-	19.0×12.5	無/有	11/21	上下黑	上下下向黑	無	-	韓紙	綉裝	徐汝中(尾)	古興博藏
卷15	否	-	-	-	-	-	-	-	-	-	-	-	-	-	-	-	-	-
卷16	否	-	-	-	-	-	-	-	-	-	-	-	-	-	-	-	-	-

### 3.2.2 字體

高麗版『禮記集說』의 殘存本에는 正字·異形字·異體字·略字·俗字·僞字 등의 여러 가지 字體가 사용되고 있다.

覺(覺)·介(介)·個(箇)·舉(舉)·繼(繼)·館(館)·國(國)·群(羣)·歸(故)·棄(弃)·斷(斷)·答(答)·亂(亂)·鸞(鸞)·略(畧)·禮(禮)·爐(爐)·離(雉)·面(面)·母(母)·貌(兒)·無(毋)·彌(弥)·變(變)·竝(并)·寶(宝)·學(學)·傳(傳)·辭(辭)·算(筭)·喪(喪)·嘗(嘗)·鼠(鼠)·釋(積)·泄(泄)·聲(聲)·世(世)·疏(疏)·修(脩)·樂(樂)·與(与)·歟(歟)·日(日)·遠(遠)·僞(佞)·劉(刘)·爾(尔)·子(子)·盡(盡)·處(処)·遷(遷)·聽(听)·體(体)·桴(桴)·摠(摠)·聰(聰)·總(總)·學(學)·獻(獻)·惠(惠)·後(后) 등 60餘字의 자체는 正字는 물론 異形字·異體字·略字·俗字·僞字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의 ‘母(母)’·‘傳(傳)’·‘日(日)’ 등의 字形은 刻手의 誤刻이 아닌가 한다.

### 3.2.3 卷頭題·卷尾題·版心題·版耳題

高麗版『禮記集說』 殘存本の 凡例題와 序題는 ‘禮記集說’이며, 卷次別 卷頭題는 ‘禮記’<sup>26)</sup>와 ‘禮記’<sup>27)</sup> 등이 사용되고 있다.

高麗版『禮記集說』 殘存本の 凡例尾題는 ‘禮記集說’이고 序尾題는 없으며, 권차별 卷尾題는 기본적으로 ‘禮記’<sup>28)</sup>가 사용되고 있으나 권6에는 卷尾題가 없다.

高麗版『禮記集說』 殘存本の 권차별 版心部 또는 版心題는 ‘紋樣’<sup>29)</sup>의 형태를 비롯하여 ‘禮記集說’<sup>30)</sup>·‘禮記集說’<sup>31)</sup>·‘禮記說’<sup>32)</sup>·‘禮記’<sup>33)</sup>·‘禮記’<sup>34)</sup>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판심제가 없는 경우<sup>35)</sup>도 있고 版心題의 아래에 ‘◎’ 등의 기호<sup>36)</sup>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26) 卷頭題가 ‘禮記’인 경우는 권1-2·4·6-12의 卷頭에서 나타나고 있다.

27) 卷頭題가 ‘禮記’인 경우는 권5의 卷頭에서 나타나고 있다.

28) 卷尾題가 ‘禮記’인 경우는 권1-2·4-5·7-12의 卷尾에서 나타나고 있다.

29) 版心題가 紋樣인 경우는 권1(제1장), 권2(제1·27장), 권4(제1·24장), 권5(제1장), 권6(제1장), 권7(제1장), 권9(제1·22장), 권10(제1·31장), 권12(제1·26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30) 版心題가 ‘禮記集說’인 경우는 권8(제20·24-25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31) 版心題가 ‘禮記集說’인 경우는 권1(제28장), 권2(제2·15·17·22장), 권4(4·6-8·21장), 권5(제14장), 권6(제17·21·24·26장), 권7(제10·28장), 권8(제9·17장), 권9(제21장), 권12(제3·15·21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32) 版心題가 ‘禮記說’인 경우는 권1(제29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33) 版心題가 ‘禮記’인 경우는 권1(제9·19-20·25장), 권8(제13·19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34) 版心題가 ‘禮記’인 경우는 권1(제2-8·10-18·21-24·26-27·30-35장), 권2(제3-14·16·18-21·23-26장), 권4(제2-3·5·9-11·13-20·22-23장), 권5(제2-13·15-24장), 권6(제2-16·18-20·22-23·25장), 권7(제2-9·11-27장), 권8(제1-8·10-12·14-16·18·21-23·26-31장), 권9(제2-20장), 권10(제2-30장), 권11(제2-26장), 권12(제2·4-14·16-20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 권2(제24장), 권4(제12장), 권5(제4·10·21장)에서는 ‘禮記’가 陰文으로 처리되어 있다.

高麗版『禮記集說』 殘存本の 권차별 版耳題는 세부의 篇名에 따라서 ‘曲禮’<sup>37)</sup>·‘檀弓’<sup>38)</sup>·‘王制’<sup>39)</sup>·‘月令’<sup>40)</sup>·‘曾子問’<sup>41)</sup>·‘文王世子’<sup>42)</sup>·‘禮運’<sup>43)</sup>·‘禮器’<sup>44)</sup>·‘郊特牲’<sup>45)</sup>·‘內則’<sup>46)</sup>·‘玉藻’<sup>47)</sup>·‘明堂’<sup>48)</sup>·‘喪小記’<sup>49)</sup>·‘大傳’<sup>50)</sup>·‘少儀’<sup>51)</sup>·‘學記’<sup>52)</sup>·‘樂記’<sup>53)</sup>·‘雜記’<sup>54)</sup>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3.2.4 邊欄과 半郭

高麗版『禮記集說』 殘存本の 권차별 邊欄은 기본적으로 ‘四周單邊’이다. 그러나 <凡例> 제1장은 ‘上下左單邊 右雙邊’의 형식이며, 이는 저본인 元朝版의 變란이 ‘四周雙邊’이고 반면에 그 복각인 高麗版은 ‘四周單邊’인 점을 감안할 때 板刻의 과정에서 생겨난 誤刻으로 짐작된다.

高麗版『禮記集說』 殘存本の 권차별 半郭<sup>55)</sup>은 대체로 18.2-19.6×12.3-12.9cm의 크기이며, 그 크기에 근소한 출입이 있는 것은 저본인 元朝版의 變란이 ‘四周雙邊’이고 반면에 그 복각인 高麗版은 ‘四周單邊’인 점을 감안할 때 板刻의 과정에서 때로는 外邊欄을 기준으로 하고 때로는 內邊欄을 기준으로 하여 板刻한 데에서 말미암은 듯하다.

- 
- 35) 版心題가 없는 경우는 권6(제27장), 권7(제29장), 권8(제32장), 권11(제1장), 권12(제22-25장)이다.  
 36) 版心題 아래에 ‘◎’ 등의 기호가 사용된 경우는 권6(제4장), 권10(제28장), 권12(제2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37) 版耳題가 ‘曲禮’인 경우는 권1(제12-34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38) 版耳題가 ‘檀弓’인 경우는 권2(제4-6·8-15·17-19·21-24·26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 제24장의 ‘檀弓’과 張次는 陰文으로 처리되어 있다.  
 39) 版耳題가 ‘王制’인 경우는 권4(제2-16·22-23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40) 版耳題가 ‘月令’인 경우는 권5(제3-6·8-15·17-23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 제4장의 ‘月令’과 張次는 陰文으로 처리되어 있고 제10·21장의 ‘月令’과 張次는 魚尾內에 陰文으로 처리되어 있다.  
 41) 版耳題가 ‘曾子問’인 경우는 권6(제2-3·5-6·8-11·14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42) 版耳題가 ‘文王世子’인 경우는 권6(제17-20·24-26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43) 版耳題가 ‘禮運’인 경우는 권7(제1-2·4-5·7-9·12-15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44) 版耳題가 ‘禮器’인 경우는 권7(제17-18·22·25-26·28-29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45) 版耳題가 ‘郊特牲’인 경우는 권8(제8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46) 版耳題가 ‘內則’인 경우는 권8(제16-17·20-25·27·29-31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47) 版耳題가 ‘玉藻’인 경우는 권9(제3-7·12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48) 版耳題가 ‘明堂’인 경우는 권9(제16·19-21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49) 版耳題가 ‘喪小記’인 경우는 권10(제4·11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50) 版耳題가 ‘大傳’인 경우는 권10(제14·15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51) 版耳題가 ‘少儀’인 경우는 권10(제23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52) 版耳題가 ‘學記’인 경우는 권10(제27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53) 版耳題가 ‘樂記’인 경우는 권11(제10·18·20·23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54) 版耳題가 ‘雜記’인 경우는 권12(제7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55) 卷次別 半郭은 제1장을 기준으로 <凡例>(18.2×12.5cm), <序>(18.5×12.5cm), 권1(18.0×12.5cm), 권2(19.0×12.5cm), 권4(19.2×12.5cm), 권5(18.5×12.5cm), 권6(18.9×12.5cm), 권7(19.3×12.5cm), 권8(19.5×12.5cm), 권9(19.0×12.5cm), 권10(19.3×12.5cm), 권11(19.5×12.5cm), 권12(19.0×12.5cm)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3.2.5 界線과 行字數

高麗版『禮記集說』殘存本の 권차별 界線은 <凡例>의 ‘有界’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는 기본적으로 ‘無界’의 형식이나 ‘有界 無界’<sup>56)</sup>·‘無界 有界’<sup>57)</sup>·‘無界 有界 無界’<sup>58)</sup>의 형식도 있다.

高麗版『禮記集說』殘存本の 권차별 行字數는 기본적으로 ‘본문 11행 21자’·‘註文 小字雙行’의 형식이나, <序>는 ‘10행 20자’이며 <凡例>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3.2.6 版口와 魚尾

高麗版『禮記集說』殘存本の 권차별 版口는 기본적으로 ‘上下黑口’의 형식이다.

高麗版『禮記集說』殘存本の 권차별 魚尾는 기본적으로 ‘上下下向黑魚尾’의 형식이나, 때로는 ‘上下下向白魚尾’<sup>59)</sup>·‘上下下向黑魚尾 下下向白魚尾’<sup>60)</sup>의 형식도 나타나고 있다.

### 3.2.7 板刻

高麗版『禮記集說』殘存本에는 板刻의 과정에서 刻手의 실수로 인한 誤刻과 未刻의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未刻의 부분은 마땅히 削刻의 대상이다.

권2 <檀弓>의 經文 중 “夫(扶□)夫也”<sup>61)</sup>의 ‘□’는 削刻의 대상이며, 註文 중 “◎方氏曰”<sup>62)</sup>의 ‘◎’는 ‘○’의 誤刻이다. 권4 <王制>의 經문 중 “禡(馬怡反□)於所征之地”<sup>63)</sup>·“一爲乾(干□)豆”<sup>64)</sup>·“屏(丙□)之遠方”<sup>65)</sup> 등의 ‘□’을 비롯한 註文 중 “與夏殷無考□”<sup>66)</sup>·“燕禮者□獻之禮”<sup>67)</sup>

56) 界線이 ‘有界 無界’인 경우는 권1·4·6·7·8·9·11·12의 제1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57) 界線이 ‘無界 有界’인 경우는 권1(제35장), 권2(제27장), 권4(제24장), 권5(제24장), 권8(제32장), 권9(제22장), 권10(제25장), 권11(제26장), 권12(제26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58) 界線이 ‘無界 有界 無界’인 경우는 권1(제22장), 권5(제5장), 권6(제16장), 권7(제16장), 권9(제16장), 권10(제12장), 권12(제12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59) 魚尾가 ‘上下下向白魚尾’인 경우는 권2(제15·24장), 권5(제1장), 권6(제27장), 권7(제7장), 권8(제29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60) 魚尾가 ‘上下下向黑魚尾 下下向白魚尾’인 경우는 권1(제27장), 권4(제17장), 권9(제10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61)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2. 檀弓. 15A.  
“... 曾子指子游而示人曰 夫(扶□)夫也 爲習於禮者 如之何其裊裘而弔也 ...”

62)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2. 檀弓. 14A.  
“... ◎[○]方氏曰 市朝猶不反兵 則無所往而不執兵矣 ...”

63)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4. 王制. 7A.  
“... 天子將出征 類乎上帝 宜乎社 造乎禡 禡(馬怡反□[刪])於所征之地 謂師祭 ...”

64)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4. 王制. 7A.  
“... 天子諸侯 無事 則歲三田 一爲乾(干□[刪])豆 二爲賓客 三爲充君之庖 ...”

65)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4. 王制. 13A.

등의 ‘口’는 削刻의 대상이며, “大而水所鍾口澤”<sup>68)</sup>의 ‘口’는 ‘曰’의 誤刻이다.

권5 <月令>의 經文 중 “不可以興上功”<sup>69)</sup>의 ‘上’은 ‘土’의 誤刻이고 “在內皆墜口其戶”<sup>70)</sup>와 “乃命大酋(犁口) … 湛(尖口)熾必絜”<sup>71)</sup>의 ‘口’는 모두가 削刻의 대상이며, 註文 중 “是載呂氏之書矣口”<sup>72)</sup> · “未知孰是口”<sup>73)</sup>의 ‘口’은 削刻의 대상이다. 또한 <曾子問>의 經文 중 “又口何助於人”<sup>74)</sup>의 ‘口’는 削刻의 대상이며, 註文 중 “其神曰口其牲”<sup>75)</sup>의 ‘口’은 ‘累’ 혹은 ‘繫’의 誤刻이고 “侯氏口冕口敬君”<sup>76)</sup>의 ‘口’는 각각 ‘裨’와 ‘今’의 誤刻이다.

권6 <文王世子>의 註文 중 “想止是有疑即問他之意”<sup>77)</sup>의 ‘止’는 ‘只’의 誤刻이며, ‘即’은 ‘卽’의 誤刻이다. 권7 <禮運>의 經文 중 “在執(勢)者去(卜聲)”<sup>78)</sup>의 ‘卜’은 ‘上’의 誤刻이며, <禮器>의 經文 중 “四士大牢而祭”<sup>79)</sup>의 ‘四’는 ‘匹’의 誤刻이다. 권10 <大傳>의 註文 중 “朱子曰節文也”<sup>80)</sup>의 ‘目’은 ‘曰’의 誤刻이다. 권11 <樂記>의 註文 중 “在地成形則口川人物”<sup>81)</sup>의 ‘口’는 ‘山’의 誤刻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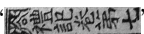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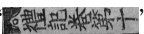
“… 如初禮 不變 屏(丙口[刪])之遠方 終身不齒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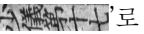
- 66)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4. 王制. 13A.  
“… 石梁王氏曰 大史典禮以下至制國用 此一節 與周制異 與夏殷無考口[刪] …”
- 67)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4. 王制. 18A.  
“… 燕禮者口[刪]獻之禮既畢皆坐而飲酒 …”
- 68)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4. 王制. 11A.  
“… 〇方氏曰 小而水所止曰沮 大而水所鍾口[曰]澤 …”
- 69)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12A.  
“… 乃命虞人入山行木 毋有斬伐 不可以興上[土]功 不可以合諸侯 不可以起兵動衆 毋舉大事 以搖養氣 …”
- 70)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18B.  
“… 蟄蟲咸俯 在內皆墜口[刪]其戶 …”
- 71)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21B.  
“… 乃命大酋(犁口[刪]) 秬稷必齊 麴糶必時 湛(尖口[刪])熾必絜 水泉必香 …”
- 72)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21B.  
“… 周禮仲冬教大閱 此言毋母起大衆 是載呂氏之書矣口[刪] …”
- 73)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21B.  
“… 朱氏謂 陽久屈而後伸 故云暢月也 未知孰是口[刪] …”
- 74)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6. 曾子問. 4B.  
“… 曾子問曰 相識有喪服 可以與於祭乎 孔子曰 總不祭 又口[刪]何助於人 …”
- 75)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6. 曾子問. 2A.  
“… 其神曰口[累·繫] 其牲 天子犬 諸侯羊 卿大夫酒脯而已 …”
- 76)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6. 曾子問. 2A.  
“… 按觀禮 侯氏口[裨]冕口[今]敬君欲豫習其禮 故冕服以視朝諸侯 相朝非君臣也 …”
- 77)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6. 文王世子. 20B.  
“… 朱子曰 師保疑丞 疑字曉不得 想止[只]是有疑卽[卽]問他之意 …”
- 78)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7. 禮運. 2A.  
“… 以考其信 著有過 刑仁講讓 示民有常 如有不由此者 在執(勢)者去(卜[上]聲) 衆以爲殃 是謂小康 …”
- 79)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7. 禮器. 22A.  
“… 是故 君子大牢而祭 謂之禮 四[匹]士大牢而祭 謂之攘 …”
- 80)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10. 大傳. 15A.  
“… 之所自出四字 朱子曰[曰]節文也 …”
- 81)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11. 樂記. 9A.

“流涵以志本□正禮則莊敬”<sup>82)</sup>의 ‘志’는 ‘忘’의 誤刻이고 ‘□’는 ‘若’의 誤刻이다.

이외에도 字體에서 보듯이 ‘母(母)’·‘傳(傳)’·‘日(日)’ 등도 刻手의 誤刻이 아닌가 한다.

### 3.2.8 其他

高麗版『禮記集說』殘存本の 卷尾의 卷次는 일반적으로 各卷 末行의 上邊欄으로부터 隔間없이 ‘禮記卷第幾’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권7의 제29장에는 본문이 끝나고 數字를 隔間한 뒤 ‘’로 나타나고 있고 권10의 제31장에는 본문이 끝나고 數字를 隔間한 뒤 ‘’으로 나타나고 있다.

高麗版『禮記集說』殘存本の 篇頭의 篇名은 일반적으로 別行으로 上邊欄에서 2자를 隔間하고 ‘某某第幾’의 形식을 취하고 있으나, 권10의 제16장에 나타나는 <少儀第十七>의 경우는 1자를 隔間하고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刻手의 誤刻으로 짐작된다.

이외에도 重疊字의 경우에는 ‘<’의 기호로 나타나고 있다.<sup>83)</sup>

### 3.3 高麗版『禮記集說』의 口訣과 藏書印

高麗版『禮記集說』殘存本에는 閱讀者에 의한 口訣이 기록되어 있으며, 所藏者에 의한 藏書印이 捺印되어 있다.

#### 3.3.1 口訣

古興博物館 소장의 高麗版『禮記集說』殘存本の 권1-2에는 墨書의 口訣이 나타나고 있고 권5-8에는 朱墨書의 口訣이 나타나고 있다.

口訣의 形식은 대체로 ‘ㄱ(은·는)’·‘乙(을·를)’·‘五(오)’·‘ㄴ(하고)’·‘ㄴ(하며)’·‘ㄴ(하니)’·‘ㄴ(하나라)’·‘ㄴ(하나나라)’·‘ㄴ(하라니)’ 등을 비롯한 다양한 釋讀口訣<sup>84)</sup>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러나’<sup>85)86)</sup>·‘러시나’<sup>87)88)</sup>·‘어’<sup>89)</sup>·‘어든’<sup>90)91)92)93)94)</sup>·‘어시든’<sup>95)</sup>·‘에’<sup>96)</sup>·‘회’<sup>97)</sup> 등의

“... 天成象則日月星辰之歷數各有其序 在地成形則□[山]川人物之等倫各有其義 ...”  
82)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11. 樂記. 13A.  
“禮慝 故慢易以犯節 流涵以志[忘]本□[若]正禮則莊敬而 有節知反 ...”  
83)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11. 樂記. 3A.  
“... 師曠曰 此師延靡<(靡)之樂 武王伐紂 師延投濮 ...”  
84) 漢文을 우리말로 풀어 읽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따를 붙인 口訣이다.  
85)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7. 禮器. 29B.

한글로 기록된 音讀口訣<sup>98)</sup>도 있으며, 특이하게도 권5 <月令> 경문 중의 “天子飲酌(直又反)用禮樂”<sup>99)</sup>의 ‘주’는 板刻된 상태의 한글 音讀口訣로 나타나고 있다.

### 3.3.2 藏書印

奎章閣 소장의 高麗版『禮記集說』 殘存本の 권4-6의 冊頭에는 원래 藏書印이 捺印되어 있었던 듯하나, 후일에 누군가에 의하여 이 부분이 刀削되어 印文을 확인할 수 없다.

古興博物館 소장의 高麗版『禮記集說』 殘存本の 권1-2의 1책의 冊頭와 冊尾에는 ‘東湖堂藏’의 印文이 있으며, 권5-8·9-12의 2책의 각 冊頭에는 ‘玉澗亭藏’·‘徐汝中’의 印文이 있고 각 冊尾에는 ‘徐汝中’의 印文이 있으나 ‘徐汝中’은 한결같이 倒印되어 있다.

#### (1) 東湖堂

‘東湖堂’은 세종 8년(1426)부터 賜暇讀書制가 실시된 이래 중종연간(1506-1544)에 豆毛浦(玉水

- 
- “… 子路\爲季氏宰러니季氏祭\ ㄷ 士\ …”
- 86)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7. 禮器. 29B.  
“… 子路\與러니室事乙交乎戶\ ㄷ …”
- 87)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7. 禮運. 1A.  
“… 仲尼\與於蜡賓러시나事畢\ ㄷ 口 …”
- 88)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7. 禮運. 1A.  
“… 仲尼之嘆 ㄷ 蓋嘆會也러시나言偃\在側分\ ㄷ …”
- 89)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7. 禮器. 20B.  
“… 士 ㄷ 於(於據反)어禁\ ㄷ ㄷ …”
- 90)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5A.  
“… 日夜\分\어든則同度量\ ㄷ …”
- 91)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6A.  
“… 乃告舟備天具于子焉\어든 …”
- 92)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6B.  
“… 戴勝降于桑어든 具曲植籩筐\ ㄷ ㄷ …”
- 93)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7A.  
“… 百工\咸理어든監工\日號\ ㄷ …”
- 94)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5A.  
“… 農乃登麥夜어든天子\ …”
- 95)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4B.  
“… 天子\親往\어시든后妃\帥九嬪御\ ㄷ ㄷ …”
- 96)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7. 禮器. 19A.  
“… 諸侯\膳以饋\ ㄷ 諸侯\相朝어灌用 ㄷ …”
- 97)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9. 玉藻. 5B.  
“… 緇布冠纁(會)회綌(紩) ㄷ 諸侯之冠也五 …”
- 98) 漢文을 우리말로 풀어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吐를 붙인 口訣이다.
- 99) 陳澧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5. 月令. 9A.  
“… 是月也 天子飲酌(直又反)用禮樂 …”

洞) 근처의 한강 변에 설치되었다가 壬辰倭亂으로 없어진 ‘東湖讀書堂’<sup>100</sup>과 관련이 있는 印文이다.

따라서 古興博物館 소장의 高麗版 『禮記集說』 殘存本の 卷1·2의 1책은 일찍이 賜暇讀書와 관련이 있는 ‘東湖堂’에서 소장되다가 현재는 殘存本으로 傳來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101</sup>

## (2) 玉澗亭藏

‘玉澗亭藏’의 ‘玉澗亭’은 조선 肅宗朝의 성리학자인 塤叟 鄭萬陽(1664-1730)과 篋叟 鄭葵陽(1667-1732) 형제<sup>102</sup>가 학문연구와 後學의 양성을 위하여 숙종 42년(1716)에 세운 亭子名이다.<sup>103</sup>

塤叟와 篋叟의 형제는 조선조 후기의 경상도 永川地域의 文人으로 본관은 迎日(烏川)이다. 형인 塤叟의 字는 皆春 또는 景醇이고 號는 塤叟이며, 아우인 篋叟는 字가 叔向이고 號는 篋叟이다.

塤篋 형제는 葛庵 李玄逸(1627-1704)·明齋 尹拯(1629-1714)·愚潭 丁時翰(1625-1707) 등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학문의 폭을 넓혔다. 그 후에 부친 陽谷 鄭碩胄(1642-1690)가 卒去한 뒤에는 함께 永川의 普賢山 아래 橫溪로 들어가 六有齋·進修齋·玉澗亭·太古窩(改稱 慕古軒) 등을 짓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여 梅山 鄭重器(1685-1757)·歸鹿 趙顯命(1690-1752)·鳴皋 鄭幹(1692-1757) 등 많은 名賢·碩學을 배출하였다.<sup>104</sup>

塤篋 형제의 저술로는 『塤篋兩先生文集』 30권과 『續集』 6권을 비롯하여 『家禮笱疑』·『改葬備要』·『尙知錄』·『疑禮便攷』·『治道擬說』·『山居日記』 등이 있다.

따라서 古興博物館 소장의 高麗版 『禮記集說』 殘存本の 권5-8·9-12의 2책은 한때 ‘玉澗亭’에 소장되다가 현재는 殘存本으로 傳來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3) 徐汝中

倒印되어 있는 ‘徐汝中’의 ‘汝中’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心齋 徐龍輔(1757-1824)<sup>105</sup>의 字이다.

- 10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中宗 5年 1月 19(丙子)日條.  
“弘文館校理洪彥弼 將大提學意啓曰 賜暇讀書人員 寓居淨業院 似不合 龍山古基 傾頽不可改構 豆毛浦 月松庵 近地平衍 有可構處 木石之輸亦便近 限日起構 使之讀書何如 傳曰 可.”
- 101) 朴文烈, “尙州牧 刊行의 高麗版 『禮記集說』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75輯(2018. 9), 59. 參看.
- 102) 塤叟 鄭萬陽과 篋叟 鄭葵陽의 家系는 “鄭襲明(迎日始祖) - 變均(02) - 謙牧(03) - 麟信(04) - 之泰(05) - 宗興(06) - 林(07) - 仁彥(08) - 光厚(09) - 瑋(10) - 文裔(11) - 從韶(12) - 以揮(13) - 次謹(14) - 允良(15) - 世雅(16) - 安藩(17) - 好仁(18) - 時行(19) - 碩胄(20) - 萬陽(21) - 一夔(22) - 籌臣(23) …”으로 系譜되고 있다(迎日鄭氏世譜廳 編, 『迎日鄭氏世譜』 卷1, 卷8 (大田: 回想社, 1981).).
- 103) 鄭重器 外編, 『玉澗亭唱酬附錄』. 筆寫本. [玉澗亭]: [鄭重器 等], [英祖 12(1736)]. 參看.
- 104) 鄭萬陽·鄭葵陽 共著, 『堦篋先生文集』. 木版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純祖 8(1808)]. <附錄>의 塤叟先生文集附錄. 10A-13A. ‘墓碣銘(李萬運撰)’條 및 篋叟先生文集附錄. 1A-14B. ‘年譜’條 參看.
- 105) 徐龍輔의 家系는 “徐閑(大丘遠祖) - 失傳(02) - 失傳(03) - 失傳(04) - 失傳(05) - 失傳(06) - 益進(07) - 義(08) - 彌性(09) - 巨廣(10) - 彭召(11) - 固(12) - 嶸(13) - 淸(14) - 景需(15, 典籤公派) - 亨履(16, 典02) - 文道(17, 典03) - 宗悌(18, 典04) - 命伯(19, 典05) - 信修(20, 典06) - 有寧(21, 典07) - 龍輔(22, 典08) - 戴淳(23, 典09) - 相翊(24, 典10) - 光敏(25, 典11) - 載國(26, 典12) - 昌錫(27, 典13) … (無著錄)”으로 系譜되고 있다(大丘徐氏世譜編纂委員會 編, 『大丘徐氏世譜』 卷1-2 (서울: 뿌리文化社, 2003).).

그는 본관이 大丘(達城)이고 字가 汝中이며 賜號는 心齋이고 諡號는 翼獻이다.<sup>106)</sup>

心齋는 영조 50년(1774)에 生員試와 增廣試 文科에 丙科로 급제<sup>107)</sup>하여 正祖 초년에는 奎章閣待教<sup>108)</sup>·奎章閣直閣<sup>109)</sup>·議政府檢詳<sup>110)</sup>·承政院承旨<sup>111)</sup>·吏曹參議<sup>112)</sup>·成均館大司成<sup>113)</sup>·全羅道觀察使<sup>114)</sup> 등을 역임하였다. 정조 16년(1792)에 謝恩副使<sup>115)</sup>로 淸朝를 使行한 뒤에 司憲府大司憲<sup>116)</sup>·京畿道觀察使<sup>117)</sup><sup>118)</sup>·奎章閣直提學<sup>119)</sup>·吏曹參判<sup>120)</sup>·弘文館副提學<sup>121)</sup>·禮曹判書<sup>122)</sup>·吏曹判書<sup>123)</sup>·遠接使<sup>124)</sup> 등을 거쳐 정조 24년(1800)에는 世子左副賓客<sup>125)</sup>·司憲府大司

- 106) 大丘徐氏世譜編纂委員會 編, 『大丘徐氏世譜』 卷2 (서울: 뿌리文化社, 2003), 147-148.  
 “龍輔: 字汝中 賜號心齋 英祖三十三年丁丑二月十五日省 甲午冬生員 同年增廣文科 官至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原任奎章閣直提學 賜諡翼獻 (深思遠慮曰翼 內忠嚮衛曰獻) 甲申八月二十一日卒 ….”
- 10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英祖 50年 11月 25(甲戌)日條.  
 “慶科大科會試榜出 取鄭一祥等三十三人 徐龍輔年十八連上下接上下大小科 時人壯之.”
- 10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4年 5月 7(乙酉)日條.  
 “以洪樂命爲藝文館提學 徐龍輔爲奎章閣待教.”
- 10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7年 1月 4(丙申)日條.  
 “以鄭一祥爲司憲府大司憲 沈豐之爲吏曹參議 徐龍輔爲奎章閣直閣.”
- 11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7年 2月 19(庚辰)日條.  
 “以徐有隣爲刑曹判書 嚴璿爲司憲府大司憲 … 鄭東浚爲議政府舍人 徐龍輔爲議政府檢詳.”
- 11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8年 9月 1(癸丑)日條.  
 “召見辛丑諸臣致祭人子孫 是日 特除李亨達·李敬懋·金文淳·徐龍輔爲承旨.”
- 11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9年 11月 11(丁巳)日條.  
 “以韓光會爲刑曹判書 尹承烈爲司憲府大司憲 尹行元爲司諫院大司諫 徐龍輔爲吏曹參議 ….”
- 11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10年 6月 3(乙亥)日條.  
 “以李性源爲工曹判書 以徐浩修爲藝文館提學 徐龍輔爲成均館大司成.”
- 11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10年 6月 21(壬子)日條.  
 “以李度默爲司憲府大司憲 安聖彬爲司諫院大司諫 鄭昌順爲議政府右參贊 徐龍輔爲全羅道觀察使 ….”
- 11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16年 8月 24(庚寅)日條.  
 “以朴宗岳爲冬至兼謝恩正使 遞副使沈煥之 以徐龍輔代之 金祖淳爲書狀官.”
- 11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16年 9月 12(戊申)日條.  
 “以徐龍輔爲司憲府大司憲 尹行任爲司諫院大司諫 俄遞行任 以林濟遠代之 尋又以李家煥代之.”
- 11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16年 8月 24(庚寅)日條.  
 “以徐龍輔爲京畿觀察使.”
- 11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18年 4月 13(己巳)日條.  
 “仍任京畿觀察使徐龍輔職.”
- 11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18年 6月 3(戊午)日條.  
 “以徐龍輔·鄭大容 爲奎章閣直提學.”
- 12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19年 7月 29(戊寅)日條.  
 “以徐龍輔爲吏曹參判.”
- 12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22年 7月 4(丙寅)日條.  
 “以徐龍輔爲弘文館副提學 具虞爲漢城府判尹.”
- 12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23年 4月 15(癸卯)日條.  
 “以宋銓爲司諫院大司諫 徐龍輔爲禮曹判書 李祖源爲判義禁府事.”
- 12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23年 8月 24(庚戌)日條.  
 “中批 徐龍輔爲吏曹判書.”
- 12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23年 12月 24(丁未)日條.

憲<sup>126</sup>)·議政府右參贊<sup>127</sup>)·吏曹判書<sup>128</sup>)·禮曹判書<sup>129</sup>) 등을 역임하였다.

순조 즉위년(1800)에 右議政<sup>130</sup>)에 올라 左議政<sup>131</sup>)·判中樞府事<sup>132</sup>) 등을 역임하고 순조 5년(1805) 10월부터 이듬해(1806) 2월까지 進賀兼謝恩의 正使<sup>133</sup>)<sup>134</sup>)<sup>135</sup>)로 淸朝를 使行한 뒤 左議政<sup>136</sup>)·右議政<sup>137</sup>)·判中樞府事<sup>138</sup>) 등을 역임하고 향리로 돌아갔으며, 향리로 돌아간 지 14년만인 순조 19년(1819)에 領議政<sup>139</sup>)에 올랐으나 이듬해(1820)에 사임<sup>140</sup>)하고 領中樞府事<sup>141</sup>)로 지내다가 향년 68세로 졸거<sup>142</sup>)하였다.

“以鄭民始爲館伴 徐龍輔爲遠接使.”

- 12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24年 正月 1(甲寅)日條.  
“以李秉模爲世子師 沈煥之爲世子傅 … 洪良浩爲左賓客 鄭民始爲右賓客 徐龍輔爲左副賓客 ….”
- 12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24年 正月 24(丁丑)日條.  
“以徐龍輔爲司憲府大司憲 李魯春爲吏曹參議.”
- 12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24年 2月 4(丁亥)日條.  
“以徐龍輔爲議政府右參贊.”
- 12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24年 2月 15(戊戌)日條.  
“以徐龍輔爲吏曹判書 金義淳爲吏曹參議.”
- 12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正祖 24年 5月 12(癸巳)日條.  
“中批 李晩秀爲吏曹判書 以徐龍輔爲禮曹判書 李敬一爲工曹判書 李殷模爲司諫院大司諫 ….”
- 13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卽位年 7月 4(甲申)日條.  
“… 又以諫書下教曰 如此大喪 三公不備 國朝初有 … 禮曹判書徐龍輔爲右相 ….”
- 13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2年 10月 27(乙丑)日條.  
“賓廳卜相 命加卜 以金觀柱爲議政府右議政 李時秀陞拜領議政 徐龍輔陞拜左議政.”
- 13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4年 3月 7(丙申)日條.  
“以朴宗慶爲吏曹參議 徐龍輔爲判中樞府事.”
- 13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5年 10月 3(壬午)日條.  
“召見謝恩正使徐龍輔 副使李始源 書狀官尹尙圭 辭陞也.”
- 13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6年 1月 12(庚申)日條.  
“進賀兼謝恩正使徐龍輔等 以自燕離發 馳啓.”
- 13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6年 2月 7(乙酉)日條.  
“召見回還三使臣 上曰 彼中有所聞 正使徐龍輔曰 以臣魯莽 顧何覘國之可論 而略以所聞言之 ….”
- 13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6年 2月 21(己亥)日條.  
“教曰 俄筵旣以此大臣去就 欲卜今日國事爲教 判中樞府事徐龍輔拜議政府左議政.”
- 13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6年 4月 5(壬午)日條.  
“命領府事李時秀復拜相職 時秀爲左議政 徐龍輔爲右議政 判府事金載瓚陞付領中樞府事.”
- 13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7年 7月 29(己巳)日條.  
“遞右議政徐龍輔爲判府事.”
- 13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19年 1月 25(戊午)日條.  
“教曰 判府事徐龍輔 拜議政府領議政 判府事金思穆拜左議政.”
- 14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20年 6月 15(己亥)日條.  
“領議政徐龍輔 屢疏陳病 乞解相職 批曰 … 議政之任 特副所請 卿其專意調攝 迺獲差復.”
- 14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23年 10月 2(丁酉)日條.  
“領府事徐龍輔單付 閔制也.”
- 14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純祖 24年 8月 21(辛巳)日條.  
“領中樞府事徐龍輔卒 … 龍輔 達城府院君宗悌曾孫也 沈厚有器度 寡言笑舉止凝重 十八登第 世已以輔相期之 及受知正廟 出入邇密 而終始被禮遇 大喪初 慈教特拜相職 時當危疑 民心波盪 颺卜之早 近世罕比 而輿望

心齋는 正祖와 貞純王后(1745-1805)의 신임이 두터워 항상 측근에서 政事를 보좌하였을 뿐 아니라 民心을 수습하는데 공로가 컸으며, 정조 21년(1797)에 왕명으로 靜修齋 李秉模(1742-1806), 方間 尹著東(1729-1797), 楓石 徐有渠(1764-1845) 등과 함께 『鄉禮合編』 3권을 편찬·간행<sup>143)</sup>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古興博物館 소장의 高麗版『禮記集說』 殘存本の 권5-8·9-12의 2책은 한때 心齋 徐龍輔에 의하여 소장되다가 현재는 殘存本으로 傳來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4. 結 論

이상에서 『禮記集說』의 編纂과 版本 및 高麗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覆刻된 高麗版『禮記集說』의 殘存本과 그 版本的 특징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禮記集說』은 元朝의 雲莊 陳澧(1260-1341)가 至治 2년(1322)에平易하고 분명한 설명으로 初學者들이 읽어도 바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校讎經文>·<援引書目>·<註說去取>·<音文反切>·<章句分段> 등의 著述觀을 발휘하여 49편 16권으로 저술하였으며 天曆 원년(1328)에 建安의 鄭明德家에서 初刊된 바 있다.

(2) 元朝 鄭明德家版 16권본 『禮記集說』은 그 뒤 明朝 成化年間(1465-1487)에 간행된 30권본과 弘治 17년(1504)에 간행된 10권본 등의 판본과 함께 世間에 널리 유포되었으며, 鄭明德家版의 『禮記集說』은 高麗로 전래되어 공양왕 3년(1391)에 慶尙道 尙州牧에서 覆刻의 형태로 초간된 바 있다.

(3) 高麗版『禮記集說』은 16권 完帙이 傳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奎章閣의 권4-6의 3권 1책과 古興博物館의 권1-2·5-8·9-12의 10권 3책 등의 11권만이 殘存本으로 傳來되고 있을 뿐 권3·13-16의 5권은 어디에도 傳來되지 않고 있다.

(4) 高麗版『禮記集說』 殘存本 11권의 일부에는 內容의 誤謬와 字體뿐 아니라 卷頭題·卷尾題·版心題·版耳題·邊欄·半郭·界線·行字數·版口·魚尾·板刻 등에서 그 版本的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刻手의 失手로 인한 誤刻과 未刻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5) 高麗版『禮記集說』의 殘存本에는 다양한 釋讀口訣과 함께 ‘러나’·‘러시나’·‘어’·‘어든’·‘어시든’·‘에’·‘회’ 등의 한글 音讀口訣이 붙은 곳도 있고 板刻된 상태의 한글 音讀口訣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

(6) 古興博物館 소장의 高麗版『禮記集說』 殘存本の 권1-2·5-8·9-12의 3책에는 ‘東湖堂

爲之蔚然焉 竟以庚申一疏 嶮岨於朝 退居鄉廬者 十四年 復以元輔起 未幾病免 無所建明 蓋才短而志衰也。”  
143) 徐龍輔 外編, 『鄉禮合編』. 金屬活字本(丁酉字). [漢城]: [鑄字所], [正祖 21(1797)]. 參看.

藏·‘玉澗亭藏’·‘徐汝中’ 등의 藏書印이 날인되어 있어 한때 ‘東湖堂’과 ‘玉澗亭’ 및 心齋 徐龍輔(1757-1824)의 소장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藏書印을 통하여 殘存本의 전래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7) 高麗版 『禮記集說』 殘存本은 비록 元朝版을 覆刻한 殘存本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의 初刊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朝鮮朝의 『禮記淺見錄』·『禮記類編』·『禮記補註』 등 각종 위대한 禮書들을 저술하는데 底本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참고문헌>

#### [原典資料]

- 徐龍輔 外編. 『鄉禮合編』. 金屬活字本(丁酉字). [漢城]: [鑄字所], [正祖 21(1797)].
-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 李仁榮 著. 『淸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寶庫社, 1993.
- 鄭萬陽·鄭葵陽 共著. 『堦簾先生文集』. 木版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純祖 8(1808)].
- 鄭重器 外編. 『玉澗亭唱酬附錄』. 筆寫本. [永川 玉澗亭]: [鄭重器], [英祖 12(1736)].
- 陳澹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1-2·5-12 <古興博物館所藏本>.
- 陳澹 著. 『禮記集說』. 木版本. [慶尙道]: [尙州牧], [恭讓王 3(1391)]. 卷4-6. <奎章閣所藏本>.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中宗實錄>·<英祖實錄>·<正祖實錄>·<純祖實錄>.

#### [單行本·論文]

- 大丘徐氏世譜編纂委員會 編. 『大丘徐氏世譜』 卷1-2. 서울: 뿌리문화社, 2003.
- 朴文烈. “尙州牧 刊行의 高麗版 『禮記集說』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75輯(2018. 9). 45-64.
- 辛承云. 『譯註禮記集說大全 1』.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9.
- 迎日鄭氏世譜廳 編. 『迎日鄭氏世譜』. 卷1·8. 大田: 回想社, 1981.
- 劉千惠. “陳澹 禮記集說之研究.” 碩士學位論文. 台北: 東吳大學, 民國 97(2008).

#### [電子情報源]

- 國立中央圖書館: <http://www.nl.go.kr/>
- 奎章閣韓國學研究院: <http://e-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國哲學書電子計劃: <http://ctext.org/wiki.pl?if=gb&res=237159>

韓國古典翻譯院: <http://db.itkc.or.kr/>

東洋古典DB: <http://db.cyberseodang.or.kr/front/sabuList/BookMain.do?mId=m01&sMode=M>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en, Hao. [King Gongyang 3(1391)]. *Yegijipseol (Lijijishuo)*, vol. 1-2 · 5-12. woodblock printing edition. [Kyeongsangdo]: [Sangjumok].

Chunghugwan. 1986.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ungjongsilrok> · <Yeongjosilrok> · <Jeongjosilrok> · <Sunjosilrok>. photographic edition. Seoul: The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Daeguseossisebo Pyeonchanwiwonhoe. 2003. *Daeguseossisebo*, vol. 1-2. Seoul: Ppurimunhwasa.

Jeong, Man Yang and Jeong, Gyu Yang. [King Sunjo 8(1808)]. *Hunjiseonsaengmunjip*. woodblock printing edition. [s.l.]: [s.n.].

Jeong, Jung Gi [et al.]. [King Yeongjo 12(1736)]. *Okganjeongchangsuburok*. manuscript. [Okganjeong]: [Jeongjunggi].

Lee, In Young. 1993. *Cheongbunsilseomok*. photographic printing edition. Seoul: Bogosa.

Liu, Qian Hui. 2008. *A Research of Chen Hao's Study on Lijijishuo*. doctor degree thesis. Taipei: Soochow University.

Park, Moon Year. 2018. "A Study on the *Yegijipseol* published by Sangjumok in Goryeo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5: 45-64. Seoul: Korean Society of Bibliography.

Seo, Yong Bo [et al.]. [King Jeongjo 21(1797)]. *Hyangryehappyeon*. Jeongyu metal type printing edition. [Hanseong]: [Jujaso].

Seungjeongwon. 1986.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Photographic printing edition. Seoul: The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Shin, Seung Woon. 2009. *Yeokju Yegijipseoldaejeon*, vol. 1. Seoul: The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Yeongiljeongssi Sebocheong. 1981. *Yeongiljeongssisebo*, vol. 1 · 8. Daejeon: Hoesangsa.

